

<후회, 그것까지 사랑이어라>

임지현(국어국문학과, 202321398)

1. 들어가기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해라. 사랑이 돼라. 사랑이어라. 모두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런가,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리 사랑을 해야 할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뜬구름 잡듯 사랑을 잡아본다. 닿을 듯 말 듯, 열심히 노력하고 손을 펴보니 내 손에 잡힌 건 커다란 후회 한 아름뿐이다. 나는 그것을 소중히 쥐고 멍하니 서서 생각해 본다.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사랑을 잡기 위해 손을 뺐은 순간엔 나도 사랑을 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내 손에 잡힌 후회가 또다시 몸집을 키운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외쳐본다. 후회, 네가 사랑이 돼라. 너도 제발 사랑이어라.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후회만 남았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후회가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어’라고 되새기며 말이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읽으며 나의 사랑만이 후회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때문에 죽은 그리소스또모, 사랑을 지키지 못한 까르데니오, 호기심으로 사랑을 잃은 안셀모.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그 끝에 후회를 남겼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도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본 글은 세 사람의 사랑 방식을 ‘후회’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고자 한다. 각자의 후회를 되짚어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후회만 남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그리소스또모, 까르데니오, 안셀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2. 후회로 가득 찬 사랑

그리소스또모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 마르셀라에게 반해 그녀를 따라다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죽어버린다. 옛말 중에 ‘열 번 짝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르셀라는 ‘열 번 짝어도 안 넘어오는 나무’였다. 현대로 따지면 스토키로 신고당해 마땅하지만, 시대는 예전이고 이 이야기는 <돈키호테>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도록 한다.

그리소스또모는 죽기 전 노래를 하나 남기고 간다. 그 노래에서 마르셀라의 무정함과 냉혹함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심경을 사자의 포효, 사나운 늑대의 공포스러운 외침 소리, 비늘이 번뜩이는 뱀의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 등 세상 만물 애잔한 것들에 비유하며 아픔을 토로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에 한 번이라도 버림받은 자들은 그리소스또모의 표현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것이다. 이 노래에는 그리소스또모의 후회가 담겨있다. 죽음에 대한 후회일까? 아니다. 그리소스또모는 오히려 죽음엔 당당했다. 두려움의 원인이 이토록 확실한데 한순간이나마 희망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냐며 오히

려 죽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했던 그리스소스토모는 어떤 후회를 했을까? 바로 사랑에 방식에 대한 후회이다. 그리스소스토모는 노래 전체에서 마르셀라의 무정함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쓰라린 마음에 관해서 서술했다. 심지어 마음씨 곱고 행실이 좋기로 소문난 마르셀라를 모함하며 말하기도 하는데, 딱 한 부분에서 자신의 후회를 드러낸다. 그건 바로 ‘내가 좋아 사랑에 미친 죄로 너의 원망을 샀다’¹⁾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소스토모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 이렇게 괴로운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내가 좋아 사랑에 미친 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마르셀라가 자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이라며 마르셀라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그리스소스토모가 사실은 내 잘못이라고 한 소절 진심을 흘린다. 나를 절대 사랑할 리 없는 너에게 미친 자신에 대한 마지막 후회를 말이다.

까르데니오는 안달루시아의 귀족 가문의 자재이다. 그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정혼자가 있는데, 바로 루스신다이다. 이 둘은 청혼을 허락받고 이제 백년해로할 일만 남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안달루시아 영주의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영주의 둘째 아들 돈 페르난도와 친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까르데니오는 돈 페르난도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루스신다를 소개해 주었지만, 돈 페르난도는 루스신다에게 사랑에 빠지고 만다. 사실 친구의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클리셰적인 이야기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자신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초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하와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러한 습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돈 페르난도가 루스신다를 사랑하게 되고, 까르데니오와의 결혼을 막고 자신과 결혼식을 올리게 한다. 루스신다가 품 안에 자신은 까르데니오의 아내이기에 페르난도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적힌 편지를 지니기까지 해 결국 결혼식은 성사되지 않았고, 훗날 다시 만나지만 까르데니오는 자신의 친구에게 약혼녀를 빼앗긴 최악의 사건이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악몽일 것이다.

까르데니오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로 인해 고통받았다. 산골짜기에서 만난 신부와 이 발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아무 생각이나 의식 없이 돌처럼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소름 끼치는 상황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내가 한 짓과 흔적 들을 말하고 보여줄 때지요. 그럴 때면 나는 쓸데없이 내 운명을 저주하고 부질없이 아파할 뿐이지요. 그리고 나의 미친 짓에 대해 용서를 빌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²⁾ 이 대사를 살펴보면 까르데니오는 돈 페르난도와 루스신다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한 폐인처럼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 생각이나 의식 없이 돌처럼 무감각해질 때’와 같이 우울하고 공허한 상태를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어떨 때 보이냐면 ‘내

1)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1』, 민용태 역, 창비, 2012, p.179.

2) 위의 책, p.393.

가 한 짓과 흔적 들을 말하고 보여줄 때'라고 한다. 여기서 '내가 한 짓'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돈 페르난도에게 루스신다를 소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까르데니오는 그 상황을 몹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미친 짓'이라고도 표현하며 계속해서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고, 그 불행의 원인은 후회에서 기원한다.

안셀모는 33장에 나오는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다. 아름답고 성품 좋은 아내 까밀라가 있지만 그녀가 과연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지 않는지 호기심을 품었다. 결국 친구 로따리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처음에 거절하던 로따리오도 계속된 부탁에 까밀라를 유혹하는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까밀라와 진실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안셀모의 비극은 자신의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행동은 호기심보다 의심에 가깝다. 호기심은 '까밀라가 다른 남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라면 의심은 '까밀라가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은 우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믿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근원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만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바탕에 깔린 사랑, 그것으로 시작된 의심인 것이다.

안셀모, 로따리오, 까밀라는 모두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안셀모 몰래 밀회를 즐기던 로따리오는 자신도 의심이 생겨 까밀라를 추궁한다. 그러다 로따리오는 안셀모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까밀라가 자신의 구애를 숨긴다며 의심스럽다고 말은 전한다. 안셀모는 당연히 사랑스러운 아내 까밀라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승리의 감정에 취해있었는데 로따리오의 발언으로 매우 놀란다. 모든 걸 들킨 로따리오와 까밀라는 가짜로 자살 소동을 벌이고 다음 날 사라진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모두 도망친 걸 깨달은 안셀모는 친구가 사는 시골로 내려가다가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걸 알게 된다. 안셀모는 그 '불행한 소문'을 듣고 친구네 집으로 와 편지를 쓰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몰고 온 커다란 불행이 자신의 목숨까지 짓누른 것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 어리석고 시건방진 욕구가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까밀라의 귀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녀를 용서한다고 전해주길 바랍니다. 아무도 기적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없고, 나 또한 그녀가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바랄 필요가 없었지요. 결국 내가 나의 불명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했는지...'3)

안셀모는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유서를 남겼다. 죽을 때를 알게 된 자는 초연해지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마련이다. 죽음을 앞둔 안셀모는 자신의 어리석은 호기심, 의심, 그리고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욕구'에 대해 돌아보고, 후회한다. 결국 내가 나의 불명예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렇게 안셀모는 자신의 후회와 함께 숨을 거둔다.

3) 위의 책, p.555.

3. 후회도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한 사랑의 형태는 무엇일까. 끝에 사랑이 아닌 후회만 남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세 사람의 후회를 비교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자.

그리소스또모는 죽음을 후회하진 않았다. 오히려 사는 게 더 고통이니 어서 죽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죽음 앞에 당당했다. 그러나 안셀모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후회를 시작했다. 죽음 앞에서 다시 본 자신의 행동이 참담했다. 안셀모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고, 또 후회했다. 죽음 앞에서 후회의 태도는 그리소스또모와 안셀모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것이다. 까르데니오도 여기에 포함된다. 까르데니오는 별 뜻 없이 친구인 돈 페르난도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소개해 줬다. 이는 친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 작은 행위가 훗날 어떤 파동을 몰고 올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후회를 불러올 거라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은 나비가 되어 큰바람을 몰고 왔고, 까르데니오는 약혼자를 친구에게 뺏긴다. 그리고 홀로 남아 후회한다.

후회는 만약에서 시작한다. '만약 내가 돈 페르난도에게 루스신다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으로 시작한 후회는 끝을 모르고 계속 이어진다. 다른 두 등장인물도 마찬가지다. 그리소스또모는 여기서 더 극단적인 예시를 보이는데, 무정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자기 모습에 후회하고, 그 후회가 증오로 변질되며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 후회가 그리소스또모를 잡아먹은 것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에게 죽음으로서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소스또모의 사랑은 그가 죽으면서 형체를 갖는다. 그에게 있어 사랑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후회의 산물이다.

안셀모의 후회는 소설 속에서 까르데니오와 그리소스또모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죽기 전 남긴 마지막 글을 통해 자기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밝히고 후회한다. 이때 후회하는 내용은 자신의 어리석은 호기심인데, 왜 루스신다를 시험하려고 했는지 후회하며 까밀라를 용서한다. 그리고 안셀모 또한 죽음에 이르는데 그리소스또모의 사랑이 죽음으로 완성된 것과 반대로 안셀모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리소스또모는 애초에 양 방향적인 사랑이 아니었지만, 안셀모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했다. 이 경우는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안셀모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그 결실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사랑을 파괴할 당시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

모든 후회는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 중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고 나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눈에 띄게 이성적이라 자신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은 신에게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과오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4. 결론

이 세 사람의 후회 양상을 정리해 보면 그리소스또모는 무정한 여자를 사랑한 후회,

까르데니오는 만약이라는 후회, 안셀모는 사랑을 버린 자의 후회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을 했다. 그 끝에 후회가 남았을지언정 뜨겁게 사랑했다. 그리소스또모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까르데니오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를 빼앗기고 미쳐 코르크나무 아래에서 노숙하고 목동들에게 구걸하는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인다. 안셀모는 모두 도망가고 나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홀로 자신의 후회에 대한 편지를 쓰다가 죽는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며 알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소스또모, 까르데니오, 안셀모 모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후회한다. 그 후회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내 모든 감정만이 남아 나를 움직인다. 그 때문에 이 세 사람도 자신의 이성이 아닌 감성을 따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다. 그치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럼, 후회는 사랑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결코 자신의 사랑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후회 또한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후회에는 잘못이 없다. 사랑에 빠진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리소스또모가 '내가 좋아 사랑에 미쳐 빠진 죄'라고 말했지만, 실은 앞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미쳐 빠진 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어쩌다 갑자기 시작된다. 그 누가 여기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올바른 답만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까르데니오는 돈 페르난도에게 루스신다를 소개해 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후회하는 것이다. 만약 까르데니오가 자신과 상관없는 여자를 돈 페르난도에게 소개해 줬고, 둘이 결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때 후회가 생기는 전제가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사랑 때문에 죽고, 고민하고, 아파한다. 안셀모가 아내 까밀라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안셀모가 까밀라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까밀라가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원인은 사랑이며 결과는 후회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또 우리는 사랑을 한다. 후회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모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사랑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후회의 전제는 사랑이고, 그렇기에 후회는 사랑의 필수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다. 설령 후회로 인해 사랑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도, 우리는 두 손에 가득 담긴 후회를 통해 사랑을 했었다 추억할 수 있다.

후회가 남아있다면 그건 사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총 분량 7520자)

- 기본 자료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떼1』, 민용태 역, 창비, 2012.